

- 2019년 상반기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 2019년 7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 러시아 연방관구별 주요 어종 도매 가격 (2019년 8월 넷째 주 기준)
- 2019년 상반기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 주요 동향



### 러시아철도공사, 전자 문서 사용해 운송시간 4일 단축

#### ■ 러시아철도공사(Russian Railways)과 FESCO 그룹이 블라디보스토크항으로 수입된 화물에 대해 전자문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운송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

- 지난 9월 4일 해륙복합운송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상업항(VMTP)<sup>a)</sup>에서 러시아철도를 이용하는 환적화물의 환적시간을 기존 5일에서 21시간으로 단축시킴
- 새로운 전자문서 제공 기술은 기존의 법적 절차를 기반으로 하되 최대 30개의 종이문서를 배제한 것으로 연방관세청(Federal Customs Service)은 세관운송을 위한 전자문서 사용을 허용함
- 또한 모바일 작업을 수행하는 검량·검수사를 위한 작업공간도 새롭게 조성됨

#### ■ 이번 전자문서 서비스는 일본 요코하마에서 모스크바까지 가는 컨테이너에 한해 최초 적용되었으며 향후 항만-철도 간 해륙복합운송 화물에 대해 계속 확장할 것으로 보임

- 전자문서 형식의 운송방식은 러시아철도공사에서 2017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 총회(UIC Asia-Pacific Regional Assembly)’에서 선보인 INTERTRAN 프로젝트<sup>b)</sup>를 통해 이행되어 오면서 점차 발전해 2019년에는 러시아철도공사와 관세청의 문서교환 방식으로 문서흐름이 전체적으로 전자화된 것임
- INTERTRAN 프로젝트의 첫 번째 단계에서 금번 전자문서를 통한 운송이 이행된 것으로, 향후 아시아태평양국가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전체 화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러시아는 통관서류가 방대하고 서류 준비가 복잡하며, 통관시간 역시 5일 가까이 소요되는 등 통관에 있어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해 왔으며, 이번 시도를 통해 통관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전체 운송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고자료**

- a) VMTP는 FESCO 운송 그룹에서 운영하는 컨테이너터미널임
- b) INTERTRAN project(Measures for the effective development of multimodal transport in Asia Pacific aimed at increasing the competitiveness of the railway transport) 로, UIC Asia Pacific project 일환으로 이행됨

## 레나강 수운회사 연합, 금년 목표 화물운송량 85% 달성

### ■ 레나강 수운회사 연합(LORP)이 지난 1~8월 동안 2019년 목표 화물량의 85%를 달성함

- 레나강 수운회사 연합이 액화 석유제품 21만 8천 톤과 건화물 73만 3천 톤, 총 95만 1천 톤(2019년 목표의 85%)을 2019년 1~8월 간 운송했다고 <야쿠티야 24>방송이 지난 9월 5일에 전함
- 이를 위해 217척의 선박과(가능 운송 화물량: 액화석유 12만 3천 톤, 건화물 18만 2천 톤)과 41척의 바지선이 운행됨
- 9월 화물량은 21만 7천 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 중 6만 6천 톤이 액화 석유제품, 15만 1천 톤이 건화물임
- 레나 수운회사 연합은 사하 공화국(야쿠티야) 북극 지역의 유일한 운송 회사로 내륙 수운과 해양 수로를 통해 화물과 승객을 운송하고 있으며, 350개 이상의 화물선과 바지선, 여객선과 보조선박을 보유하고 있음(가능 운송 화물량: 45만 톤)

### ■ 레나강과 야나강의 여름철 얇은 수심이 화물 운송에 장애

- 수운 회사의 제1부국장 세르게이 이멜라노프는 여름 시즌에 레강과 야나강의 수심이 얇아져 화물 운송에 어려움이 있으나, 8월 운송 계획은 모두 달성되었다고 밝힘
- 8월에 7만 7천4백 톤의 석유 액화물(계획: 7만 7천 톤)과 27만7천 톤의 건화물(계획: 15만 9천 톤)을 운송함. 9월 5일 기준으로 제바리키-하야 채석장의 석탄 7만 3천 톤이 선적되었으며 6만 3천 톤이 야나 강을 통해 운반됨
- 야나강의 얇은 수심과 관련해서는 러시아 연방 내륙수운(KBBT)법 제77조 “선박 운행의 제한 및 금지” 법이 시행되고 있음
- 러시아 연방 내륙수운(KBBT)법 제77조 요약: 승객의 생명과 화물의 안전 등 내륙수운 관리를 위해 항만에 화물과 선박이 과도한 경우, 선박의 이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특정 지역의 수위가 낮을 때, 내륙 수로 특정 방향의 교통을 제한, 금지할 권리가 있음(이하, 이동 제한 또는 교통 금지)
- 이멜라노프 부국장에 따르면, 북극 지역으로의 화물 운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16만 2천 톤이 운송 완료되었으며, 24만 9천 톤이 운송 중에 있음

---

## 참고자료

- a) <https://news.ati.su/news/2019/09/06/gruzoperevozki-lorp-za-8-mesyacev-2019-goda-sostavili-951-tys-tonn-161000/>(2019.9.7. 검색)
- b) [http://yk24.ru/index/obshhestvo/godovoj-plan-po-perevozkam-gruzov-pao-lorp-vyipolnen-na-85?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2019.9.7. 검색\)](http://yk24.ru/index/obshhestvo/godovoj-plan-po-perevozkam-gruzov-pao-lorp-vyipolnen-na-85?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2019.9.7. 검색))
- c) [http://www.1sn.ru/233644.html?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2019.9.7. 검색\)](http://www.1sn.ru/233644.html?utm_source=yxnews&utm_medium=desktop&utm_referrer=https%3A%2F%2Fyandex.ru%2Fnews(2019.9.7. 검색))
- d) [http://kvt.ru/glava-11/st-77-kvt-rf\(2019.9.7. 검색\)](http://kvt.ru/glava-11/st-77-kvt-rf(2019.9.7. 검색))

# 러시아의 압박과 투자금 확보 난항...혼돈에 빠진 조지아 아나클리아 신항 프로젝트

## ■ 조지아 정부가 추진 중인 25억 달러 규모 흑해 동부 항만 사업인 아나클리아(Anaklia) 항 프로젝트가 복잡한 국제정세, 특히 러시아의 압박을 받고 있음

- 러시아 또한 흑해 동부에 노보로시스크(Novorossiysk) 항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조지아 신항과의 경쟁으로 인한 유럽 및 아시아 발 물동량 감소를 원치 않고 있음
- 또한 아나클리아 신항은 러시아가 2008년 전쟁을 통해 독립을 승인한 압하지야(Abkhazia) 지역과 인접해 있음.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독립을 요구하며 조지아인과 반목했던 소수민족 압하스인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써, 나토의 동진정책에 대항하고 있음. 따라서 신항의 미 해군 함정 입항은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는 시나리오가 될 것임

## ■ 또한 신항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개발은행으로부터의 자금 융통과 민·관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조지아 정부는 사업자인 아나클리아 개발 컨소시엄(Anaklia Development Consortium) 측에 자금융통 협정준비를 위한 서류제출을 올해 12월 중순까지 연장했음
- 이를 통해 정부와 4개 국제적인 자금융통 기관인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미국 해외민간 투자공사(OPIC), 아시아개발은행(AD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사이에서, 조지아 정부가 컨소시엄의 사업 보증인으로서의 역할 논의와 자금 융통이 본격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었음
- 그러나 마야 츠키티쉬빌리(Maya Tskitishvili) 조지아 인프라부 장관은 “정부는 사업을 지원할 수는 있으나 민간 분야의 위험요인을 떠안을 수는 없다”며 자금융통을 위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선을 그었고, 컨소시엄 측은 “항만 건설은 단순한 민간사업이 아니다”며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했음
- 민·관의 갈등에서 비롯된 정부와 해외기금 간 협상 난항으로 인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미국 기업 콘티 인터내셔널(Conti International)이 더 이상 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움직임을 보였음. 하지만 레반 아흐블레디아니(Levan Akhvlediani) 컨소시엄 대표이사는 “(콘티의 탈퇴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언급했음

■ 그럼에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또한 아나클리아 신항이 지닌 잠재력과 지정학적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음. 조지아 정부 또한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아나클리아 신항은 20.5m의 항만 수심, 32개 부두와 600헥타르의 자유무역지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보스포러스 해협을 통과하는 최대 10,000 TEU 규모의 화물선을 수용할 수 있음
- 신항 건설 이후 향후 50년 동안 연간 2천 만 톤의 화물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조지아의 주요 항구인 포티(Poti), 바투미(Batumi), 스퍼사(Supsa), 쿨레비(Kulevi) 4개 항의 화물 처리량을 합한 총합 1천 만 톤보다 많은 수치임
- 조지아 정부는 또한 올해 2월 루마니아,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과 함께 흑해-카스피 해 운송회랑 프로젝트(Caspian Sea-Black Sea Transport Corridor)에 대한 의견에 공감한 바 있으며, 중국 또한 일대일로 및 신실크로드 프로젝트에서 아나클리아 항이 지닌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음. 이에 마이크 폼페오(Mike Pompeo) 미 국무장관은 “아나클리아 신항은 중국과 러시아의 경제력 잠식으로부터 조지아 경제를 보호할 것”이라 언급하며, 러시아와 중국의 관심에 대한 견제의 뜻을 내비쳤음

그림 1. 아나클리아 신항 예상도



조용성 현지리포터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 우크라이나, 오데사 근교 곡물 터미널 시범운영 종료 및 본격 가동 시작...미국 및 서유럽 자본 투입

## ■ 오데사(Odessa) 근교 피브덴니(Pivdennyi·러시아어 유즈니Yuzhny) 항에 위치한 신설 곡물 터미널 넵툰(Neptune)이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적인 가동에 돌입했음

- 넵툰 곡물 터미널 사업은 우크라이나 기업 MV 카고(MV Cargo)와 미국의 다국적 식품기업 카길(Cargill)의 합작 프로젝트였음
- 곡물 터미널은 작년 5월 완공 및 시범운영 체제에 돌입한 후 180만 톤의 곡물을 처리했음. 터미널이 전면 가동에 돌입할 경우 연간 최대 5백 만 톤의 곡물을 처리할 수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하는 규모임
- 또한 터미널의 최대 저장 규모는 곡물 29만 톤임

## ■ 미국 카길 사 외에도 유럽 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또한 넵툰 터미널 사업에 투자했으며, 터미널 운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평가가 있음

- 필립 흐루쉬코(Filipp Hrushko) MV 카고 프로젝트 책임자는 라디오 스보보다(Radio Svoboda)와의 인터뷰에서 “넵툰 터미널은 개방형 터미널로서 현재 4개의 거래처가 참여하고 있고, 현재 곡물 수출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사업을 구상하던 시기에는 홍작 등의 위험요소가 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최근 몇 년간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았다”고 대답했음
- 아울러, MV 카고 측은 최근 농지매매 관련 법안 발의로 곡물 생산량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으며, 카길 사 또한 향후 10년 동안 우크라이나 산 곡물의 연간 수출량이 최대 1억 톤에 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음
- 한편 총 사업비용은 1억 5,000만 달러(한화 약 1,800억 원) 규모이며, 유럽 부흥개발은행은 여기에 거의 절반의 규모를 출자한 바 있음. 이는 우크라이나 물류 경제에 미국과 EU의 영향력이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음

---

### 참고자료

- a) <https://www.portseurope.com/in-a-win-for-russia-anaklia-deep-sea-port-project-descends-into-chaos/> (2019.9.2. 검색)
- b) <https://www.georgianjournal.ge/business/35453-anaklia-port-and-its-importance-for-georgia.html> (2019.9.2. 검색)



그림 1. 넵툰(Neptune) 곡물 터미널 프로젝트



조용성 현지리porter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대학교  
(+7 981-198-65-06, mirinae2929@gmail.com)

---

#### 참고자료

- a) <https://maritimebusinessnews.com.ua/%d0%bf%d1%96%d0%b4-%d0%be%d0%b4%d0%b5%d1%81%d0%be%d1%8e-%d0%b2%d1%96%d0%b4%d0%ba%d1%80%d0%b8%d0%bb%d0%b8-%d0%b7%d0%b5%d1%80%d0%bd%d0%be%d0%b2%d0%b8%d0%b9-%d1%82%d0%b5%d1%80%d0%bc%d1%96%d0%bd%d0%b0/2019/09/07/> (2019.9.9. 검색)
- b) <https://biz.nv.ua/markets/mv-cargo-i-cargill-oficialno-zapustili-zernovoy-terminal-v-portu-y-uzhnyy-novosti-ukrainy-50041653.html> (2019.9.9. 검색)

## 제5차 동방경제포럼, 한국정부 러 측에 공동투자펀드 제안… 양국 경제협력 실행 가속도?

### ■ 제5차 동방경제포럼 개최를 계기로, 신북방·신동방 일환의 한러 경제협력사업들에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됨

-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제5차 동방경제포럼에서 한국정부의 대표단장으로 참석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러 공동 투자펀드 설립을 제안함
- 홍 부총리는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 관련해 한러 공동투자펀드 설립을 제안한다며, (펀드는) 관련분야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또한 이와 관련해 그는 불화수소를 사례로 들며 러시아는 불화수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의 한국 공급 안정화를 위해 한국이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들은 이달 24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되는 한러 경제협력 공동위원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함

- 러시아의 원천기술과 한국 자본과 결합해 양자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다면서 공동위원회에서 실질적 논의를 적극 제안함
- 나인 브릿지 계획과 관련된 공동인프라 프로젝트 개발을 포함해 사업 전반에 대해 이번 양국 간 경제협력 공동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임

### ■ 한편 내년도 제3차 한러 지방 협력포럼의 개최지인 울산광역시도 송철호 시장을 주축으로 약 20여명의 대표단이 이번 동방경제포럼 및 지방협력포럼에 참가했음

-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이번 2차 지방협력포럼의 연사로 나선 송 시장은 울산시는 대형 석유가스단지 건설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을 더욱 긴밀히 할 것이라고 말함
- 그러면서 송시장은 2020년 제3차 한러 지방협력포럼의 울산 개최를 통해 북방경제협력 중심도시인 울산 브랜드를 동북아의 석유 가스 물류 허브가 돼 한러 에너지 협력 강화에 일조는 물론 지역경제의 발전상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임

## ■ 포항시는 올해 말까지 한국 포항시-러시아 블라디보스톡 간 유람선이 신규 취항할 예정임

- 러시아 연해주 주지사와 한국 경상북도 도지사가 가진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연해주 정부 공보실이 밝힘
- 연해주정부는 새로운 유람선 취항을 위해 포항시에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취항으로) 투자자들뿐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매우 흥미롭고 양국이 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논평함

전명수 현지 리포터 국립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  
(070-5044-9502, msjeon1976@gmail.com)

---

### 참고자료

- a) <https://tass.ru/ekonomika/6851973>(2019.9.8. 검색)
- b) <https://ria.ru/20190905/1558369200.html>(2019.9.8. 검색)
- c) <https://tass.ru/ekonomika/6851929>(2019.9.8. 검색)

## 투르크메니스탄, 섬유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쓸 전망

### ■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섬유산업은 주요 성장 동력 산업이며, 지속적인 현대화를 통해 국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예정

- 지난 달 투르크메니스탄 아바자(Avaza) 관광 특구에서는 제1차 카스피안 경제 포럼(Caspian Economic Forum)이 진행되었고, 여기에는 러시아와 미국, 아랍에미리트, 터키 등 다수 국가가 참여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섬유산업의 혁신기술을 관람했음
- 이를 통해 지난 달 투르크메니스탄 섬유산업 부문에서 다른 국가들과 약 630만 달러 상당의 면화 거래 협정이 이루어졌음

### ■ 2019년 상반기, 투르크메니스탄의 섬유산업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성장한 결과를 보임

- 이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섬유산업 현대화를 위한 첨단기술 단지의 조성 및 국가 주요산업으로서의 지속적인 투자로 가져온 성과라고 판단됨
- 특히 면화 생산량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5.9%, 합성섬유인 테리직물(Terry cloth) 75.6%, 실크생사(Raw silk) 91.8%, 봉제 및 편직물 47.9%, 카펫류는 16%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임
- 판매량을 분석해보면, 역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2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총 39,300톤에 해당하는 면화 규모임

### ■ 혁신기술을 통한 섬유 가공 산업은 높은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돋움 할 수 있음

-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면화 생산에 매우 적합한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어 고급 면화 품종의 재배가 가능한 이점을 가지고 있음
- 1990년대 독립 직후의 섬유 가공 공정의 비율은 면화 생산량의 3%에 그쳤으나, 현재는 51%로 증가했음

###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섬유 산업 부문에 있어 발전된 기술 적용과 활용을 위해 대규모 공업 단지 조성 및 해외의 장비들을 활발히 도입

- 투르크메니스탄 섬유 생산업체들은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 환경경영시스템,

OHSAS 18001 보건 및 안전 경영시스템 등을 인증 받음

- 이러한 기술 성장은 수출의 확대를 가져오고, 특히 투르크메니스탄은 고품질의 섬유 가공품들을 생산하되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수 있는 특징점이 있어 그 잠재력이 클 것으로 전망
- 아울러 국제 시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 디자이너의 고용 등을 통해 기성품 수출에도 많은 투자를 할 예정임
- 또한 재생섬유를 생산할 수 있는 섬유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쉬가바트 섬유산업 단지 (Ashgabat Textile Complex)에 설치되어 연간 5,000톤 이상을 처리할 수 있게 됨
- 한편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국가산업 발전 전략에 따라 섬유산업을 계속 지원할 전망이며, 국가 내 38개 시설에 대한 현대화 작업과 약 3,000개 이상의 작업장을 신축할 것이라고 언급함

오상호 리포터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앙아시아연구소

(031-330-4145, editor405ca@gmail.com)

---

#### 참고자료

a)State News Agency of Turkmenistan, <http://www.turkmenistan.gov.tm/> (2019.9.9. 검색)



## 이슈페이퍼



# 극동연방관구로 통합 후 자바이칼 변경의 개혁 및 한계점

## ■ 러시아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자바이칼 변경과 부랴티야 공화국을 극동연방관구의 새로운 연방주체로 통합함

- 두 연방주체의 경우 2018년 12월까지 시베리아연방관구에 속했으나 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극동연방관구로 통합되어 선도개발구역, 극동 헥타르 등의 투자정책 혜택을 받게 됨
- 또한 러시아 연방 정부의 극동개발 국가 프로그램에 따라 경제성장 중심지로 개발될 계획임
- 2018년 11월 6일 자바이칼 변경을 극동연방관구로 통합하기 위한 특별기관을 설립했으며 본 기관에서는 개발 부문을 사회와 경제로 나눠 계획을 세움

그림 1. 자바이칼 변경 위치 및 국경



## ■ 극동연방관구에는 총 58개의 경제성장 중심지가 있으며 이 곳에 극동인구의 약 81%가 밀집해 있음

- 이 중 11개 지역이 자바이칼 변경 영토에 위치하며 이 지역 모두 재건 및 혁신이 필요함
- 극동 경제성장 중심지에서 재건 및 건설 등이 필요한 건수는 총 431개이며 자바이칼의 경우

73건이 계획되어 있음

- 이 중 46건(약 63%)의 경우 자바이칼 변경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할 예정임

## ■ 올 5월 7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자바이칼 변경에 대한 예산변경을 승인했으며 2021년까지 약 94억 루블의 정부예산이 할당됨

- 2017년 자바이칼 변경의 총 고정투자금액은 약 912억 5,800만 루블로 이 중 정부예산은 약 42억 8,900만 루블로 약 4.7%임<sup>b)</sup>
- 2017년 정부예산과 극동연방관구로 통합 후 정부예산을 비교했을 때 약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지역개발은 3년 단위로 계획되었으며 연도별 할당된 예산은 다음과 같음: 2019년 약 34억 루블, 2020년 약 31억 루블, 2021년 약 29억 루블
- 이에 따라 지역당국은 개발 및 발전에 필요한 프로젝트 문서 준비 및 국가검증, 경쟁 및 입찰 절차(시설건설 및 재건 단계) 등의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분야별 개발계획 및 할당예산은 다음과 같음
  - 보건부문(30억 루블): 40개 산부인과 건설 및 매입(2019년 12곳 포함), 7개 병원 재건 및 개보수, 구급차 52대 및 농촌지역 등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량 내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는 2대 의료차량 구입(총 54대 차량 중 2019년 총 38대 차량이 지역에 배치됨), 32개 기관에서 의료장비 구매(2019년 18개 기관에서 구매완료), 의료 종사자를 위한 203개 거주지(아파트) 구매 (2019년 75개 구매완료)
  - 교육부문(21억 루블): 마그존에 500명 수용 가능한 학교 건설 및 120명 수용 가능한 유치원 건설, 바랴가에 400명 수용 가능한 학교 건설, 치타시에 312명 수용 가능한 유치원 2개 건설(2019년까지 완료해야하는 부분: 11개 학교 및 3개 유치원 재건 및 개보수, 37개 교육기관에 화장실 배치, Worldskills 표준에 따라 7개 중등·전문교육기관 현대화)
  - 문화부문(4억 300만 루블): 농촌지역 내 문화·레저 센터 7개 건설, 2019년까지 3개의 문화기관 재건 및 개보수, 도서관 건설을 완료해야 함
  - 스포츠부문(6억 4,200만 루블): 2개의 스포츠 복합단지 건설, 60개 운동장 건설 (2019년 20개 포함), 100개의 야외 훈련장 건설, 2019년까지 9개의 스포츠 시설 재건 및 개보수
  - 사회보호부문(1,880만 루블): 장애아동을 위한 4개 단기체류 단체 개설(2019년 2개 개설)
  - 사회적인 정비 및 개선부문(4억 1,800만 루블): 2019년까지 다음과 같은 부분을 완



료해야함. 325개 어린이 놀이터 구성, 200개 스포츠 공간 구성, 171개 사회·공공 영  
토 개선

- 교통부문(28억 루블): 치타시 나고르나야 거리 도로건설, 중심도로 117.6km 재정비  
(2019년 31개 거주지역 33.9km 도로 포함), 치타시 거리·도로 네트워크 보수  
21.8km, 운송서비스를 위한 77대 중대형 버스 구매(2019년에 42대 구입함)

## ■ 현재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교통부문은 주로 도로 인프라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있으나 극동연방관구 통합을 위해서는 항공운송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음

- 극동연방관구 항공운송의 경우 러시아 정부의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됨에 따라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개발에 필요한 자금조달 또한 약 3배로 증가함
- 또한 항공 처리물동량을 금액으로 환산했을 시 약 82억 루블까지 증가했으며 연중 운행노선  
또한 134개 노선으로 확대됨

## ■ 자바이칼 변경의 경우 항공운송을 위해 약 1억 7,700만 루블의 보조금이 할당되었으며 이는 약 1만 8,000명의 승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금액임

- 항공 보조금은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자바이칼 변경에서 항공 보조금이 지급되는  
운항노선은 이르쿠츠크, 야쿠츠크, 크라스노랴르스크, 에카체린부르크임
- 러시아 정부는 자바이칼 변경 항공노선 확장 및 승객유치를 위해 러시아 국영항공사 아에로  
플롯과 협력하고자 함
- 2019년의 경우 아에로플롯 측에서 운항확정을 받았으나 2020년에도 운항여부에 대해서는  
불확실한 답변을 받음
- 자바이칼 변경의 항공운항은 2015년 동계운항 수익성에 따라 치타행 항공편 대부분이 운항정  
지됐으며 최근 4년 동안 시베리아 항공과 우랄 항공만이 치타로 운항 중임
-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자바이칼 변경으로의 항공운항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 자바이칼 변경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자바이칼 변경 북쪽지역에 주요 광물자원이 집중되어 있으나 운송 및 에너지 인프라 시설의  
밀도가 낮음

- 자바이칼 변강은 중국, 몽골의 2개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나 국경 인프라 수준이 표준 이하임
- 지역 내 낮은 수준의 지질 탐사
- 관리·감독되지 않은 산림자원 및 운송 인프라 부족
- 낮은 투자환경 및 투자경쟁력(2019년 러시아 연방주체 투자환경 순위 85개 지역 평가 중 84위임)

## ■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러시아 정부는 세금 혜택 및 선도개발구역 등의 투자정책을 실행, 인프라 등을 구축을 하고자 함

- 현재 선도개발구역에 15개 투자 프로젝트 신청서가 제출되었으며 총 투자금액 약 1,962억 루블, 약 9,21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봄
- 투자유치 정책에 따라 10년간 세금공제금액은 약 313억 루블이 될 것으로 전망됨
- 15개의 프로젝트에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참여함
- 6개의 중소기업: 17억 루블 투자, 551명 일자리 창출(식품생산, 펠릿생산, 폐기물 매립지 등)
- 9개의 대기업: 1,945억 루블 투자, 8,659명 일자리 창출(주로 대규모 프로젝트로 광물자원 채굴 및 가공 등)
- 대기업이 참여하는 투자 프로젝트의 경우 채굴지가 운송 인프라 등이 개발되지 않은 지역에 위치함에 따라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구현을 위해선 주정부의인프라 지원이 필요함

## ■ 자바이칼 변강의 경우 중국과 몽골 2개의 국가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수출입 주요 지역으로 지리적인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 현재 자바이칼 변강에는 도로와 철도로 연결되는 2개의 국경통과 지점이 있으나 국경 인프라는 평균 이하로 현대화가 필요함
-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최대 3일까지 소요되며 이는 운송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약화요인이 됨

표 1. 연도별 자바이칼 변경 수출입액(1/4분기 기준)<sup>㉠</sup>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7	2018	2019
수출액	57	85	148
수입액	130	133	104

표 2. 국가별 자바이칼 변경 수출입액<sup>㉡</sup>

(단위: 천 달러)

구분	2019년 1/4분기		2018년 전체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중국	116,060	101,345	360,670	539,781
몽골	439.0	-	2,877	-

## ■ 자바이칼 변경의 경우 극동연방관구로 통합 된지 불과 8개월이 경과해 사회·경제 개발계획의 시작단계로 투자정책에 따른 결과를 기대하기엔 다소 이른 시점임

-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2015년부터 선도개발구역 및 자유항, 극동 헥타르 등의 사회·경제 발전정책을 통해 극동지역 한계점 개선이 선행되었기에 자바이칼 변경의 경우 다소 빠른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러시아 교통부는 자바이칼 변경의 2개 검문소 개선을 위해 자금조달 등의 부분에서 우선순위를 보장할 것을 약속함
- 2019년 7월 31일 러시아 연방 정부는 차량으로 중국에서 자바이칼 변경을 통해 러시아로 입국할 시 입국절차를 간소화하는 연방법을 개정함
- 또한 2019년 4월 3일부터 자바이칼 변경 치타시에 위치한 ‘카달라’ 공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에게 전자비자를 발급 받아 러시아로 입국이 가능하게 됨
- 이와 같은 절차간소화 등의 정책을 통해 연도별 1/4분기 자바이칼 변경의 수출입액을 비교해 보면 2019년 극동연방관구로 통합된 후 수출액이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2019년 1/4분기 중국으로의 수출액 추이를 보면 2019년 말까지 전년도 수출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

## 참고자료

- a) <https://sib.fm/news/2018/11/05/buryatiya-i-zabajkale-bolshe-ne-sibir---mneniya>(검색일: 2019년 9월 8일)
- b) РОССТАТ, Регионы России. Основные характеристики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2018), p. 612
- c) 극동연방관구 세관통계,  
<http://dvtu.customs.ru/statistic/zabajkal-skij-kraj/2018-god/document/176937>,  
<http://dvtu.customs.ru/statistic/2019-god/itogovaya-informacziya/document/190089>(검색일: 2019년 9월 8일)
- d) 극동연방관구 세관통계,  
<http://dvtu.customs.ru/statistic/zabajkal-skij-kraj/2019/document/190097>,  
<http://dvtu.customs.ru/statistic/zabajkal-skij-kraj/2018-god/document/176937>(검색일: 2019년 9월 8일)
- e) <https://minvr.ru/press-center/news/23021/>(검색일: 2019년 9월 6일)



## 주요 통계



표 1. 2019년 상반기 러시아 수역별 항만 물동량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18/2019 증가율
극동지역	66.46 (+8.6%)	38.49 (+3.9%)	104.95	+6.8%
북극해	14.91 (+5.5%)	36.74 (+35.3%)	51.65	+25.1%
발트해	55.5 (+2.6%)	74.56 (+8.8%)	130.06	+6.1%
아조프-흑해	41.57 (-28.3%)	77.32 (+2.7%)	118.89	-10.8%
카스피해	1.28 (-7.6%)	2.21(+213.3%)	3.48	+44.1%
합계	179.71(-4.8%)	229.33(+9.7%)	409.04	+2.8%

\* 주: 극동지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울가, 오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캐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얀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베크,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표 2. 2019년 7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품목 규모

(단위: 천 톤)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식료품 및 원자재	375,956.5	76,596.4	375,092.0	76,479.3	864.5	117.1
광물 제품	1,100,495.0	6,460.2	1,100,494.7	6,460.2	0.3	0.0
연료 및 에너지 제품	993,070.1	5,846.4	993,069.8	5,846.4	0.3	0.0
생고무 및 화학 제품	4,471.6	71,583.2	4,052.9	71,323.9	418.7	259.3
가죽원료, 모피 제품	7.9	1,304.4	7.9	1,304.4	0.0	0.0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92,832.5	6,927.4	92,739.8	6,795.0	92.7	132.4
섬유, 섬유 제품 및 신발	123.4	36,490.7	122.8	36,489.2	0.6	1.6
금속 및 금속 제품	48,909.5	53,060.8	48,795.3	52,605.7	114.1	455.1
기계류	20,491.7	447,400.5	20,298.3	447,383.9	193.5	16.6
기타	174,976.0	40,245.3	174,868.2	40,245.3	107.8	0.0
합계	1,818,264.1	740,068.9	1,816,471.8	739,086.9	1,792.3	982.0

\*주: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표 3. 러시아 연방관구별 주요 어종 도매 가격(2019년 8월 26일 ~9월 1일)

연방관구	어종	1kg당 가격	가격 변동률	
			주간	8월 26일 ~ 9월 1일
극동 연방관구	태평양 대구	175.0	0.0%	-11.6%
	명태	107.0	0.0%	+9.2%
	태평양 청어	58.0	0.0%	+16.0%
	가자미	97.0	-1.0%	+7.8%
북극해	해덕대구	208.0	0.0%	-1.0%
	대서양 대구	250.0	+0.8%	-15.3%
	고등어	122.0	+1.7%	-2.4%
	대서양 청어	72.0	+2.9%	+2.9%
발트해	고등어	130.0	+2.4%	0.0%
	명태	125.0	+1.6%	+6.8%
	열빙어	115.0	0.0%	+130.0%
	대서양 청어	85.0	+2.4%	+16.4%



표 4. 2019년 7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 규모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선어,생물	0	0	0	7	0	0	0	7	-	-	-	-
냉동어	106,307	175,439	1,796	3,038	106,307	175,439	1,796	3,038	0	0	-	-
연어류	6,993	23,366	-	-	6,993	23,366	-	-	0	0	-	-
넙치	612	2,969	-	-	612	2,969	-	-	-	-	-	-
가자미	383	490	-	-	383	490	-	-	-	-	-	-
가자미류	5,835	5,244	-	-	5,835	5,244	-	-	-	-	-	-
청어	8,885	25,027	-	-	8,885	25,027	-	-	0	0	-	-
대구	57,267	78,190	-	-	57,267	78,190	-	-	-	-	-	-
명태	152	287	-	-	152	287	-	-	-	-	-	-
농어	3,038	15,618	-	-	3,038	15,618	-	-	-	-	-	-
간, 곤이 (어란)	1,245	2,100	-	-	1,245	2,100	-	-	-	-	-	-
지느러미, 머리, 꼬리 등 생선부산물	959	3,037	-	-	959	3,037	-	-	-	-	-	-
생선필렛, 어육	9	157	49	146	9	157	49	146	-	-	-	-
건어, 훈제, 염장, 어분	8,626	135,282	106	617	8,626	135,282	106	617	-	-	-	-
갑각류	7,666	127,632	2	65	7,666	127,632	2	65	-	-	-	-

계류	3,977	12,720	-	-	3,977	12,720	-	-	-	-	-	-
조개류	202	503	-	-	202	503	-	-	-	-	-	-
가리비류	3,104	6,330	-	-	3,104	6,330	-	-	-	-	-	-
오징어류, 문어류	843	3,276	64	252	843	3,276	64	252	-	-	-	-
수산물척추동물	555	1,915	-	-	555	1,915	-	-	0	0	-	-
해삼류	289	1,361	-	-	289	1,361	-	-	0	0	-	-
성게류	0	0	-	-	0	0	-	-	-	-	-	-

(단위: 천 톤, 달러)

\*주: CIS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올가 연구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thkim@kmi.re.kr/051-797-4783)